

<慕竹旨郎歌>의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하여

박재민 *

「慕竹旨郎歌」는 『三國遺事』 卷2, <孝昭王代 竹旨郎>조에 수록되어 전하는 향가이다. 그간 연구자들의 논의를 따르다면, 竹旨는 당시 老衰한 화랑으로서 젊은 得鳥에게 은총을 베풀 바, 得鳥가 그에 감사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¹⁾ 그를 ‘老’한 인물로 보게 된 이유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장군 竹旨의 전성시기가 649~671년으로서 『삼국유사』에 기록된 효소왕(692~702) 때보다 거의 20~30년이나 앞서기 때문이며, ‘衰’한 인물로 보는 까닭은 『삼국사기』에 나타난 장군으로서의 권위가 『삼국유사』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竹旨의 노쇠한 정황은 ‘(～)去隱春’,²⁾ ‘年數就音’, ‘蓬次叱巷’ 등의 해독³⁾에도 영향을 주어 각각 ‘간 봄, 주름살, 쭉구렁(무덤)’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 1) 양주동이 『古歌研究』(1942)에서 “孝昭王代에 그가 得鳥를 爲하여 講暇하노라 盡力한 것은 이미 그의 六十餘歲時에 속한다. 써 그가 出將入相·四代冢宰를 歷任한 뒤에도 暮年에 依然히 國仙에 位하였음을 알지오 本歌首句以下 特히 第三·四句가 郎의 얼굴이 늙어감을 앗기는 辭로된 所以然을 알것이다.”(인용: 增訂 『古歌研究』 일조각, 1997, 69면)라 한 이래로, 박노준(「慕竹旨郎歌考」, 『연민이가원선생육질송수기념논총』, 범학도서, 1977), 신동훈(「모죽지랑가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양희철(「慕竹旨郎歌의 創作 時期 一瞥」,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1997), 이도흠(「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학회, 1998) 등이 연속적으로 이에 동조하였다.
- 2) 「모죽지랑가」의 첫머리 부분 탈락에 관해서는 「모죽지랑가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박재민,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 3) ‘(～)去隱春’은 양주동 이래로 모두 ‘지나간 봄(봄은 청춘의 은유)’의 의미로, ‘年數

의미로 파악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본문을 살펴보면 이 글은 竹旨의 노년시 생긴 사건이라기보다는 그가 젊었을 때 발생한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고, 또한 위의 해독구절들도 노쇠한 상황을 전제한 후 미루어 짐작한 의미들이고 보면, 「모죽지랑가」는 죽지가 노쇠했던 시기에 지어진 쓸쓸한 느낌의 노래라는 기존의 연구결과는 재고의 여지를 가지게 된다. 즉, 「모죽지랑가」가 竹旨·得鳥가 젊었던 시절에 생겨난 노래라면 기존의 해석들은 필연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모죽지랑가」의 정확한 창작시기와 정서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단계로 먼저 <孝昭王代 竹旨郎>조에 나타난 일화들이 과연 孝昭王대의 일인가에 대한 추정을 해 보고자 한다. 삼국유사의 연대기재를 의심하는 다소 모험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노래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보아야 한다.

I. 『삼국유사』 <孝昭王代 竹旨郎>조

㉑ 제32대 효소왕 시대에 죽만랑의 무리 가운데 得鳥(혹은 得谷이라고도 한다.) 급간이 있었는데, ㉒ 풍류황권에 등록되어 날마다 출근하더니 열흘 동안 보이지를 앓았다. 죽만랑이 그 어머니를 불러 “그대 아들이 어디 있는가?” 하고 물으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당전 모랑부 아간 익선이 내 아들을 부산성의 창직으로 제수해 달려갔는데, 급히 가느라 낭께 말씀드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낭이 말하기를 “그대 아들이 만약 사사로운 일로 그 곳에 갔다면 찾아볼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공사로 갔으니 모름지기 가서 대접하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설병 한 합과 술 한 동이를 갖고 죄인(향언으로 晳叱知라 하니 노복을 말한다.)을 거느리고 떠나니, ㉓ 낭도 137명 역시 위의를 갖추어 따랐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得鳥失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就音은 양주동은 ‘주름살’, 김완진은 ‘해(年)가 갈수록’, 유창균은 ‘나이 마침(생의 마침)’으로, ‘蓬叱知巷’은 대체적으로 ‘무덤의 은유’로 보고 있다.

말하기를 “지금 익선의 밭에서 관례에 따라 부역하고 있다.” 하였다.

냥이 밭으로 가서 가지고 간 술과 떡으로 접대하고 ㉠ 익선에게 휴가를 청해 得鳥와 함께 돌아오고자 하니, 익선이 굳게 금지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리 간진이 추화군 능절의 조세 30석을 거두어 성 안으로 수송하다가 냥이 선비를 중히 여기는 풍도를 듣고는 아름답게 여기고 익선의 용통성 없음을 비루하게 여겨, 이에 이끌고 가던 30석을 익선에게 주고 요청했으나 그래도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사지 진절이 騎馬와 鞍具를 그에게 주니 그제서야 허락하였다.

㉡ 조정 的花主가 그 말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럽고 추함을 씻고자 하였는데, 익선이 도망해 숨어버렸으므로 그의 장자를 잡아갔다. 이때는 중동의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성안 못 가운데서 목욕을 시키니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다.

대왕이 그 말을 듣고는 명을 내려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내쫓아 다시는 관공서에 밭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검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만약 중이 된 자가 있더라도 鐘鼓가 있는 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명령을 내려 간진의 자손을 평정호손으로 삼아 표창하게 하였다. ㉢ 이때 圓測법사는 해동의 고승이었으나 모량리 사람이었던 까닭에 승직을 주지 않았다. (중략)

그가 장성하여 벼슬길에 올라 김유신 공의 부수가 되어 삼한을 통일하고

㉣ 진덕, 태종, 문무, 신문 등 4대의 총재가 되어 나라를 안정시켰다.

처음에 得鳥谷이 냥을 사모하여 노래를 지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래 생략)⁴⁾

4) 孝昭王代. 竹旨郎亦作竹曼, 亦名智官

第三十二, 孝昭王代, 竹曼郎之徒, 有得鳥一云谷, 級干, 隸名於風流黃卷, 追日仕進, 隔旬日不見, 郎喚其母, 問爾子何在, 母曰: “幢典牟梁益宣阿干, 以我子差富山城倉直, 馳去行急, 未暇告辭於郎.” 郎曰: “女子若私事適彼, 則不須尋訪, 今以公事進去, 須歸享矣.” 乃以舌餅一合酒一缸, 率左人鄉云皆叱知, 言奴僕也而行, **郎徒百三十七人, 亦具儀侍從,** 到富山城, 問閭人, 得鳥失奚在, 人曰: “今在益宣田, 隨例赴役.” 郎歸田, 以所將酒餅饗之, **請假於益宣, 將欲偕還, 益宣固禁不許.** 時有使吏侃珍, 管收推火郡, 能節租三十石, 輸送城中, 美郎之重土風味, 鄙宣暗塞不通, 乃以所領三十石, 贈益宣助請,

II. 과연 孝昭王代 일인가?5)

1. 『삼국사기』에 나타난 竹旨의 관직 변화로 본 시기 추정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正史인 『삼국사기』에 나타난 竹旨의 연도별 위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나타난 그의 지

猶不許，又以珍節舍知騎馬鞍具貽之，乃許。朝廷花主聞之，遣使取益宣，將洗浴其垢。宣逃隱，掠其長子而去，時仲冬極寒之日，浴洗於城內池中，仍令凍死。大王聞之，勅牟梁里人從官者，並合黜遣，更不接公署，不著黑衣，若爲僧者，不合入鐘，鼓寺中，勅史上侃珍子孫，爲杵定戶孫，標異之。時圓剛法師，是海東高德，以牟梁里人，故不授僧職 (중략)

壯而出仕，與庾信公爲副帥，統三韓，眞德太宗文武神文，四代爲冢宰，安定厥邦。初得烏谷，慕輿而作歌曰：“□□□□ □□□□□□□□ □去隱春皆理米 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目煙廻於尸七史伊衣 逢烏支 惡知作乎下是 郎也 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蓬次叱巷中 宿尸夜音有叱下是”：『三國遺事』卷2，「紀異」，〈孝昭王代竹旨郎〉

- 5) <竹旨郎>조의 사건이 孝昭王代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했을 것임을 지적한 최초의 연구자는 三品彰英(『新羅花郎의 研究』, 三省堂, 1943)이다. 그는 죽지랑을 삼국유사에서 효소왕대라고 기재한 것을 연대적 오류로 보았는데, 그 이유로 죽지랑의 화랑시기와 ‘효소왕대’는 어울리지 않음을 들었다. 이로 죽지랑의 화랑시기를 ‘진평왕대’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후, 홍기문 또한 “유사에서 이 이야기를 효소왕대의 일로 기록한 것은 득오곡의 노래 지은 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화랑이란 소년들로 되는 것이니 죽지랑의 늙은 뒤가 아닐 것이며, 둘째 죽지랑이 60여세에는 이미 세력이 혁혁한 고관이니 득오곡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간진의 힘을 빌지 않았을 것이다.”(『항가해석』, 과학원, 1956, 78~79면)라고 하여 그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

이에 대한 본격적 고찰은 신수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竹旨郎이 得烏를 만나러 부성에 갔을 때, 익선이 得烏의 諱暇를 불허하므로 아진과 더불어 익선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겨우 허락을 받을 신분이었다면 그 사건 당시 竹旨郎의 관등이 아간보다 하급이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 사건 당시 竹旨郎의 관등이 익선 아간보다 상급이었다면 竹旨郎이 익선을 소환하여 得烏에게 휴가해 주라고 명령하면 될 것이지, 하급자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慕竹旨郎歌의 創作 年代 研究』, 『국어국문학』 23호, 국어국문학회, 1961)라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위 설들을 검증하였다.

위와 <竹旨郎>조에서 보이는 그의 지위를 비교하면 이 사건이 그가 젊었을 때의 일인지 아니면 늙었을 때의 일인지를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49년경 ⁶⁾	651년 ⁷⁾	661년 ⁸⁾	668년 ⁹⁾
波珍滄	執事部中侍	蘇判	伊滄
(17관등의 제4위)	(진골독점관직)	(17관등의 제3위)	(17관등의 제2위)

위 기록에서 보이듯이 竹旨는 649년경 이미 파진찬의 지위에 올라 있었고 이후 집사부 시중·소관의 지위를 순차적으로 거쳐, 668년에는 17관등의 제2위에 해당하는 伊滄의 지위에 오른다. 그런데 그러한 즉위령이 약 24년 뒤에 즉위한 孝昭王代에는 ㉞, ㉟의 기록처럼 다시 화랑의 지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지위의 변화로 보인다. 화랑은 확인되는 다음의 기록

-
- 6) 649(眞德王 3년): 가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석토 등 일곱 성을 쳐서 함락시켰으므로 왕이 대장군 김유신과 장군 진춘, **죽지(竹旨)**, 친존 등에게 명하여 나가서 이를 막게 했다. (秋八月 百濟將軍殷率衆來 攻陷石吐等七城 王命大將軍庾信 將軍陳春 **竹旨** 天存等 出拒之): 『三國史記』, 『新羅本紀』
 - 7) 651(眞德王 5년): 2월에 품주를 고쳐 집사부로 하고 **파진찬 竹旨**를 **집사부 중시**로 삼아 기밀사무를 맡게 하였다. (五年 春正月朔, … 二月, 改稟主爲執事部, 仍拜 **波珍滄竹旨** 爲執事中侍 以掌機密事務.): 『三國史記』, 『新羅本紀』
 - 8) 661(文武王 元年): 문무왕 원년(661) 용삭 원년 봄에 왕은 말하기를 “백제의 여적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곧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찬품일과 소관문화과 대이찬량도 등을 장군으로 삼아 가서 토벌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므로 또 이찬 흠순 또는 欽春이라고도 함, 진흠, 친존과 **소관 竹旨** 등을 파견하여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 龍朔元年春, 王謂百濟餘燼尚在, 不可不滅, 以伊滄品日 **蘇判**文王 大阿滄良圖等爲將軍 往伐之, 不克. 又遣伊滄欽純一作欽春 眞欽 天存 **蘇判竹旨** 等濟師.):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
 - 9) 文武王 8년(668): … 6월 21일에 왕은 대각간 김유신을 대당대통관으로 삼고 각간 김인문, 흠순, 친존, 문충과 잡찬 진복과 파진찬 지경과 대이찬 량도, 개원, 흠들을 대당총관으로 삼고 **이찬 진순春이라고도 함, 竹旨**를 경정총관으로 삼고 … (… 二十一日 以大角干金庾信 爲大幢大摠管 角干金仁問 欽純 天存 文忠 迎滄眞福 波珍滄智鏡 大阿滄良圖 愷元 欽突 爲大幢摠管. **伊滄陳純** 一作春 **竹旨** 爲京停摠管 …): 『三國史記』, 『新羅本紀』

백운이 나이 14세에 국선(國仙)이 되었으나 15세에 눈이 멀어 맹인(盲人)이 되니 (白雲 年十四爲國仙 十五而盲): 『삼국사절요』, 본기, 병술년

김유신 ... 나이 18세 되던 임신년에 검술을 닦아 국선(國仙)이 되었다 (年至十八壬申 修劍得術 爲國仙): 『삼국유사』 권1, 김유신

사다함은 ... 근본이 좋은 가문에 귀족의 자제로서 품모가 맑고 준수하며 지기가 방정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받들어 화랑으로 삼기를 청하니 마지못해 화랑이 되었는데, 그 무리가 무려 1천 명이나 되었으며 그들의 환심을 다 얻었다. ... 그 때 사다함은 나이 15, 6세이었는데도 종군하기를 청했다. (斯多含 ... 本高門華胄 風標清秀 志氣方正 時人請奉爲花郎 不得已爲之 其徒無慮一千人 盡得其歡心 ... 時斯多含 年十五六 請從軍): 『삼국사기』 권44, 열전4

관창(官昌) — 또는 관장(官狀)이라고도 한다. — 은 신라 장군 품일(品日)의 아들이다. 용모와 자태가 아름답고 아담하여 소년으로 화랑이 되었는데, 남과 잘 사귀었다. 나이 16세에 말을 탈 수 있고, 활을 잘 당길 수 있었으므로, 어떤 대감(大監)이 그를 태종대왕에게 천거했다. (官昌 一云官狀 新羅將軍品日之子 儀表都雅 少而爲花郎 善與人交 年十六 能騎馬彎弓 大監某薦之太宗大王): 『삼국사기』 권47, 열전7

등으로 볼 때, 모두 20세 미만의 청소년으로만 나타나고 있고, ㉞ ‘풍류황관’이란 것도 화랑단의 명부로 짐작되는데 다음의 기록

“중 혜숙(惠宿)은 화랑 호세랑(好世郎)의 무리 중에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호세랑은 이미 황관(黃卷)에서 이름을 지워버렸고, 혜숙스님도 적선촌(赤善村) 숨어 산지가 20여 년이나 되었다.” (釋惠宿 沈光於好世郎徒 郎既讓名黃卷 師亦隱居赤善村 今安康縣有赤谷村 二十餘年): 『삼국유사』 권4, 二惠同塵

으로 볼 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¹⁰⁾이 상례인 것으

10) ‘황관’에서 기록하였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모죽지랑가를 근거로 할 때는 ‘화랑을 따르는 무리’까지도 망라된 명부인 듯도 하며, 이 조를 근거로 판단할 때는 ‘화랑 그 자신’만을 기록한 명부인 듯도 하다. 하지만, 화랑 그 자신만을 적는 것이라면 명부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이기에(화랑이 동시대에 수십 명이 된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신라시대를 통틀어 200여명 정도였다고 하니 동일시대로 계산해 본다면 1세대에 30명 정도가 되겠다.) 화랑과 그를 따르는 문도를

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竹旨는 ㉠와 같이 17관등의 제6위에 해당하는 阿干직인 익선에게조차 냉혹한 거절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孝昭王代 竹旨의 지위로는 발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것을 ‘화랑세력의 쇠퇴와 관련된 죽지랑 개인의 몰락’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근거가 없다.¹¹⁾ 『삼국사기』, 『삼국유사』만을 보았을 때, 효소왕대에 화랑세력이 前代에 비해 약화되어 있던

모두 망라한 명부가 아니었나 한다. 한편, ‘황권에서 이름을 지웠다’는 것은 ‘더 이상 화랑의 신분이 아님’의 대유적 기술이겠다.

- 11) 박노준은 ‘낭도인 得烏가 실제 이후의 竹旨郎의 초라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를 기린 노래였는데 그 主旨가 있다고 생각한다. ... 그 때야말로 竹旨郎과 같은 統三의 영웅도 신라의 二聖이라고 하는 金庾信의 세력도 그들과 비교할 때 미미한 존재인 문관계층에게서 푸대접과 멸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상황이 변해버린 시대였다.’(『慕竹旨郎歌考』, 『연민이가원선생유질송수기념논총』, 범학도서, 1977)라고 하여 <竹旨郎>조에 실린 竹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화랑단의 위기와 관련된 역사·사회학적 시각으로 풀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다음의 상황을 살펴 볼 때 다소 수긍이 가지 않는 일면이 있다. <竹旨郎>조에 보면, 이 사건이 조정의 화랑총재에게 알려지자 익선은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데, 익선의 이러한 행동은 화랑단 중 유력자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또 화랑의 총재가 익선의 아들을 대신 잡아 죽였을 때, 왕이 전폭적 지지를 보내 모량리 출신은 관직에 다시 등용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두 관리 간진·진철이 竹旨를 도와 준 점 등은 화랑이 당시에든 변함없이 국가나 관리의 두터운 호위를 받고 있었음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사 내적인 증거 외에도 화랑이 당시에 번성했다는 기록은 많다. 『삼국유사』 <栢栗寺>(효소왕)조에 등장하는 夫禮郎의 문도는 1천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고, 진성여왕대(887-897)의 화랑인 <孝宗郎>의 경우에도 그 낭도가 수백은 되었을 법한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모두 통틀어도 효소왕 당시에 화랑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는데 <竹旨郎>조에 나타난 竹旨의 경우만을 가지고 화랑도의 쇠퇴에 관한 자료를 삼으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한다.

효소왕 당시에 화랑단이 쇠퇴해가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 국사학계의 이홍직 교수의 주장인데, 그때 그가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이 <竹旨郎>조이다. 그는 본 조에 나타난 竹旨의 무력한 모습에 대해 ‘有力한 花郎의 晩年の 한 事件으로 ... 竹旨郎의 老境의 處地가 너무나 無力함은 ...’ (『三國遺事 竹旨郎條의 雜考』, 『黃義敦先生古稀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60)이라고 하여 이 사건을 화랑세력의 쇠퇴와 연관지으려 하였다. 이것을 다시 박노준이 ‘당시엔 화랑의 세력이 쇠퇴할 때니까’ 라고 하여 순환논증한 것이다.

정황을 감지할 수 없고, 죽지랑 또한 당대의 偉人으로 누차 기록되어 있으니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이를 부정하긴 어렵다. 이런 정황으로 필자는 竹旨郎조에 나타난 竹旨와 得鳥의 일화는 최소한 그가 아직은 波珍滄이 아니었던 시기인 649년 이전, 그들이 젊은 화랑이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었겠는가란 복잡하지 않은 가정을 일단 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은 ㉔의 ‘…朝廷花主聞之…’란 구절과도 순조롭게 조응한다. 이 글에서 보면, 花主는 근무장소·명칭으로 보아 조정에서 화랑단 전체를 통괄하는 사무를 맡고 있는 직위로 보이는데, 竹旨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행하고 있다. 즉,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집단중의 하나인 竹旨의 무리가 억울한 일을 당함에 즉시 권력을 발동하여 사태를 수습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시 화랑단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가설에 대한 직접적 反證이 되며, 동시에 죽지랑이 청소년 화랑임을 재암시하기도 한다. 만약, ‘청소년 화랑’이 아닌 孝昭王代의 竹旨였다면 그 자신이 화주 혹은 그에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화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터이기 때문이다.

2. 圓測의 생몰년대로 본 시대추정

필자는 위에서 이 사건을 죽지랑이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일화로 보았다. 이것은 문헌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竹旨 개인의 몰락’이라든가 ‘당시 화랑 세력의 약화’ 등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찌면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圓測과 관련된 ㉔구절을 인용한다. 圓測은 竹旨보다 약 10세 정도 많은 인물로 추정되는데 효소왕, 竹旨와 더불어 역사적 활동시기가 비교적 분명한 인물이다.

이때 圓測법사는 해동의 고덕이었으나, 모량리 사람이었던 까닭에 승직을 주지 않았다. (時 圓測法師 是海東高德 以牟梁里人 故不授僧職): 『삼국유사』 권 2, 기이, 효소왕대 죽지랑

이 구절은 익선의 악행으로 모량리 출신들의 관직 등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圓測도 그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구절이다. 하지만, 圓測은 기록¹²⁾에 따르면 613년(진평왕 35년)에 태어나 696년(효소왕 5년)에 84세로 입적한, 모량리 사건 당시에는 이미 80세 이상의 나이에 달해 있었을 인물이다. 그런데도 『삼국유사』에서는 모량리 사건 때문에 圓測이 승직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84세까지 산 圓測이 80세 때 일어난 모량리 사건 때문에 평생 신라에서 승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¹³⁾ 圓測이 신라에서 승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모량리 사건이 그의 젊은 시절에 일어나지 않은 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된

12) 송복 撰 『大周西明寺 故大德圓測法師 佛舍利塔銘』(이능화 著, 『조선불교통사』 編下, 164면)

13) 배경설화의 발생을 효소왕대로 보고 있는 입장의 신동훈은 다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이때, 원측법사와 관계된 기록의 해명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나, 원측이 효소왕대 초에 중국에서 세상을 떠난 인물임을 통해 볼 때, 그가 죽은 다음 신라로부터 僧職을 追贈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 등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모죽지랑가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제1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하지만, 이 견해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황적 모순과 ‘僧職’이라는 것이 과연 죽은 후에 追贈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할 줄 안다. 필자는 설화의 정황이 효소왕대로 보아서는 모순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승직’ 또한 생존시에 僧에게 부여하는 官職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음의 ‘승관’과 같은 차원의 용어일 것이다.

“원성왕 원년(785)에 이르러 처음으로 승관(僧官)을 두고 중 가운데서 재주와 덕행이 있는 이를 가려서 이에 충당했는데, 연고가 있으면 같이 들었으며 일정한 연한은 없었다. 국통(國統) — 한 명 — 일설에는 사주(寺主)라 한다 — 이었다. 진흥왕 12년(551)에 고구려 혜량법사(惠良法師)를 사주로 삼았다. 도유나랑(都唯那娘) — 한 명이었다. 아니대도유나(阿尼大都唯那) — 한 명이었다. 진흥왕이 처음으로 보량법사(寶良法師)로써 이를 삼았는데, 진덕왕 원년(647)에 한 명을 늘렸다. 대서성(大書省) — 한 명이었다. 진흥왕이 안장법사(安藏法師)로써 이를 삼았는데, 진덕왕 원년(647)에 한 명을 늘렸다. 소년서성(少年書省) — 두 명이었다. 원성왕 3년(787)에 혜영(惠英)과 범여(梵如) 두 법사로써 이를 삼았다.”(至聖王元年 初置僧官 簡僧中有才行者 充之 有故則遞 無定年限 國統一人 一云寺主 眞興王十二年 以高句麗惠亮法師爲寺主 都唯那娘一人 阿尼大都唯那一人 眞興王始以寶良法師爲之 眞德王元年 加一人 大書省一人 眞興王以安藏法師爲之 眞德王元年 加一人 少年書省二人 元聖王三年 以惠英·梵如二法師爲之) 『삼국사기』 권40, 잡지9

다. 즉, 모랑리 사건은 그가 한창 승려로서 명성을 쌓아 가며 승직에도 등용될 수 있는 젊은 나이 즈음(20, 30대)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圓測의 나이가 젊었을 시기는 선덕왕(632~647) 혹은 진덕왕(647~654)대에 해당하므로, 圓測과 관련된 기사로써 시대를 추론해 보아도 이 사건은 孝昭王代(692~702)보다는 훨씬 이전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竹旨의 관직과 圓測의 생몰년대 비교

위에서 <竹旨郎>조의 사건이 孝昭王代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보았다. 이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비교적 분명한 연대를 가진 인물들끼리의 비교라 할 수 있는데, 그 비교를 통하여 보았을 때, 孝昭王代와 竹旨의 활동시기가 잘 부합하지 않고 또, 孝昭王代와 圓測의 활동시기도 잘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만약 孝昭王代를 고정시켜 두고 이 두 가지의 불일치를 설명하자면 상당히 많은 가설과 추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 가지를 명쾌하게 설명한 연구는 없다. 그것은 자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구절을 지나치게 신뢰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필자는 ‘孝昭王代’라는 기록을 잠깐 무시하고 ‘竹旨郎’조에 나타난 정황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한다. 圓測과 竹旨의 젊은 시절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圓測의 생애와 竹旨의 관직 변화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된다.

王代:	선덕왕	-	진덕왕	-	태종무열왕	-	문무왕	-	신문왕	-	효소왕	-	696
即位年:	(632년)		(647년)		(654년)		(661년)		(681년)		(692년)		
圓測:	20세		35세		42세		49세		69세		80세		84세(입적)
年代:	㉠(모랑리사건)(649년)						(661년)(668년)		㉡(다모랑리사건)		(696년)		
竹旨:				波珍滄(제4位)			蘇判(제3位)			伊滄(제2位)			

일연의 기록을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의 모든 기사가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 풍류황권 등록과는 효소왕대라면 그의 이

름이 이미 풍류황권에서 말소되었을 나이¹⁴⁾라는 점에서, ㉔ ‘낭도 137명 역시 위의를 갖추어 따랐다’와는 그가 이미 화랑의 나이가 아닌란 점에서, ㉕ ‘익선에게 휴가를 청해 得鳥와 함께 돌아오고자 하니, 익선이 굳게 금지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와는 그가 익선보다 높은 지위일 것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㉖ ‘조정의 花主가 그 말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익선을 잡아다가 그 더럽고 추함을 씻고자 하였는데, 익선이 도망해 숨어버렸으므로’와는 죽지랑보다 월등하게 높은 권력을 가진 화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㉗ ‘이때 圓測법사는 해동의 고승이었으나 모랑리 사람이었던 까닭에 승직을 주지 않았다’와는 圓測의 나이가 이미 그때에는 승직을 주고 주지 않을 정황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이 효소왕과 관련이 없는 그가 청소년이었던 ㉘의 시기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㉔·㉕·㉖·㉗·㉘는 모두 무리 없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즉, ㉔·㉕는 그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화랑이었고 또한 그 정도의 나이였기에 그 정도의 낭도를 거느린 것이 되고 또한 풍류황권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㉖는 역시 그가 청소년 화랑단의 대표였기에 6급 관리에게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되고, ㉗의 경우는 그가 청소년 화랑이었기 때문에 조정의 화주가 그를 관리하였던 것이 되며, ㉘의 경우는 圓測이 젊었던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라에서 평생 그가 출세할 수 없었던 것이 되며, ㉙의 경우는 그가 젊어서 그런 일화를 겪었고 후에 커서 고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어느 하나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 없게 된다. 이로써 필자는 모랑리 사건이 윗 그림의 ㉘부분에서 일어났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竹旨郎조>는 孝昭王代(692~702)가 아닌 竹旨, 得鳥, 圓測이 젊었던 善德-眞德 당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4. 『삼국유사』 편목의 오류

필자는 위에서 <孝昭王代 竹旨郎>에 나타난 죽지의 사건이 효소왕대가

14) 설화에서는 풍류황권에 이름이 오른 이를 득오라 하였지만, 득오가 죽지랑의 무리인 이상, 같은 명부에 죽지의 이름도 있어야 옳겠다.

아닌 선덕, 진덕왕대일 가능성을 살폈다. 이는 『삼국유사』의 연대기재 자체를 의심하는 모험적인 발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단순한 모험만은 아니다. 『삼국유사』의 연대기재에는 간혹 오류가 나타나고, 효소왕대에 바로 후행하여 나타나는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에 대한 기록들에서도 연대기재의 오류가 연차적으로 나타남을 보기 때문이다. 이들 항목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기록을 『삼국사기』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효소왕 692~702	죽지랑의 활동기가 진덕, 태종, 문무로 나타나고 있음.	죽지랑조 죽지랑의 진성기를 진덕, 태종, 문무, 신문 의 4대로 기록하고 있음.(與庚信公爲副帥, 統三韓, 眞德太宗文武神文, 四代爲冢宰, 安 定厥邦)
성덕왕 702~737	임관군(臨關郡)→본디 모화군(毛火郡) →혹은 문화군(蚊化郡)이라고도 쓴다→이다. 성덕왕 이 성을 쌓아 일본이 도둑질하는 길을 막았 다.(臨關郡 本毛火 一作蚊化 郡 聖德王築城 以遮日本賊路): 『삼국사기』, 성덕왕조, 722년 당나라 현종은 발해와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에 쳐들어 왔으므로 ... (신라의) 군사들 내어 말갈의 남쪽 변경을 치게 했다. (唐玄宗 以渤海靺鞨 越海入寇登州 ... 發兵擊靺鞨南 鄙): 『삼국사기』, 성덕왕조, 733년	<기록 누락>
효성왕 737~742	효성왕(孝成王)이 왕위에 올랐다 ... 2년 (738) ... 여름 4월에 당나라 사신 형숙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등 서책을 왕에게 바쳤다. (孝成王立 ... 夏四月 唐使臣邢昺 壽 以老子道德經等文書 獻于王): 『삼국사기』, 효 성왕조	개원(開元) 10년 임술(722) 10월에 처음으로 관문(關門)을 모화군(毛火郡)에 세웠다. 지금의 모화촌(毛火村)으로서 경주의 동남 경(東南境)에 속했다. 곧 일본을 방어하는 변방의 요새 였다.(開元十年壬戌十月 始築關 門於毛火郡 今毛火村 屬慶州東南境 乃防日 本塞垣也 周廻六千七百九十二步五尺) 개원 21년 계유(733)에 당나라 사람들이 북 적(北狄)을 치려고 신라에 출병하기를 요청 하여 사객(使客) 604명이 신라에 왔다가 본 국으로 돌아갔다.(開元二十一年癸酉 唐人欲 征北狄 請兵新羅 客使六百四人來還國) 당나라에서 『 도덕경(道德經) 』 등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았다.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삼국유사』, 경덕왕조
경덕왕 742~765		

도표를 보면, 동일한 사건들로 여겨지는 기록들이 『삼국유사』가 『삼국사

기』에 비해 一代정도씩 밀려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필자는 이를 ‘효소왕대 죽지랑’의 오류 방증 자료로 삼고자 한다. 물론, 도표에서 보이는 밀림 현상을 효소왕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는 없겠다. 一代씩의 차이가 그대로 효소왕까지 소급되었다고 볼 직접적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주안점은, 문면(文面)으로나 역사적 시기로나 효소왕대에 가까운 이 기록들이 기재의 오류가 분명한 이상, ‘효소왕대’ 역시 이러한 오류가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성립함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효소왕대 죽지랑>이 포함된 『삼국유사』 권2는 이러한 오류 외에도 여러 미심쩍은 요소들이 보인다. 다른 모든 향가들을 기록한 방식과 달리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죽지랑가’, ‘찬기파랑가’ 등이 기재의 방식을 일반과 달리하고 있고, 위 표와 같은 명백한 오류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 도표의 『삼국유사』 경덕왕 향을 보면, ‘도덕경’이라는 어휘가 단지 ‘덕경’으로만 판단되어 있음을 본다. 행의 첫머리에서 생겨난 이 현상은 『삼국유사』가 그 성립단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얼마만큼의 변개가 생겼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문헌의 이러한 오류를 감안할 때, <효소왕대 죽지랑>은 그 역사적 제 위 치로써 연구자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게 된다.

III. 의미

만약 위의 추론이 인정을 받는다면 그간 <모죽지랑가>에 대한 이해는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 같다. 즉, 그간 연구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발생 시기, 죽지와 득오의 나이에 관련한 <모죽지랑가>의 어조, 사건에 기반한 <모죽지랑가>의 어석문제 등에 필연적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간 연구자들이 <모죽지랑가>를 연구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온 사항 중의 하나는 이 시가 사모시(思慕詩)나 추모시(追慕詩)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쟁점들은 시의 대상을 ‘老衰한 죽지·死後의 죽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결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추론의

결과처럼 효소왕이 아닌 선덕왕대에 생겨난 것이라 할 때, 이를 바탕으로 <모 죽지랑가>에 나타나는 슬픔(憂音)은 죽지랑의 노쇠·죽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희망(宿尸夜音) 또한 그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될 줄 안다.

한편, 배경설화와는 별도로, 이 노래의 창작은 그래도 ‘효소왕대’라는 입장—가령, 효소왕대에 죽지가 사망하여 득오가 그에 대한 輓歌를 불렀을 경우—을 취할 경우에도 이 시의 화자는 젊은 득오가 아니라 ‘늙은 득오’임을 염두에 둔 이해가 필요할 줄 안다. 효소왕대의 죽지가 이미 늙거나 사망한 죽지인 만큼, 그의 낭도였던 득오 역시 창작 당시에는 그와 방불한 나이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두 경우는 ‘初¹⁵⁾의 해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만약 初가 사건 발생 당시를 지칭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이 노래는 우리가 그간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일 가능성이 많겠고, ‘初가 문장 전환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라 하더라도 화자의 연령 설정이 달라지는 만큼의 의미차가 있게 될 것이다.

終.

【補論】

본문에서 간과하고 지났던 두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려 한다. 죽지를 도왔던 인물 珍節의 관직명 ‘舍知’와 이 설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富山城’이 그것이다. 어찌 보면 간과할 수도 있는 이 두 명사는 위 설화의 발생 시기를 추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舍知’라는 관명은 다음의 기록

사지(舍知)는 두 명으로 신문왕 5년(685)에 두었는데 경덕왕 18년(759)에 고쳐서 원외랑(員外郎)이라 했다가 혜공왕 12년(776)에 다시 사지라 불렀다. (舍知二人 神文王五年置 景德王十八年 改爲員外郎 惠恭王十二年 復稱舍知): 『삼국사기』 권38, 잡지7

15) ‘初得烏谷 暮郎而作歌曰 ~’

에서 보이듯이 신문왕대에서야 비로소 생긴 직명이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설화의 배경을 설명한 연구는 보지 못했지만, 이는 문면 그대로만 보면 ‘효소왕대 발생설’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하여는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다음을 보자.

죽죽 ... 선덕왕(632~647) 때에 사지(舍知)가 되어 대야성 도독 김품석(金品釋)의 휘하에서 보좌했다. (竹竹 ... 善德王時 爲舍知 佐大耶城都督金品釋幢下): 『삼국사기』 권47, 열전7

첫 기록을 따를 때, 이 기록은 있을 수 없는 것이 된다. ‘사지’라는 관직이 존재하지도 않은 때에 이미 ‘죽죽’이란 인물이 ‘사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우리는 죽죽의 관직명에만 근거하여 이를 ‘신문왕’ 이후의 인물이라 파악해야 할까 아니면 이 항목에 나타난 다른 몇 정황을 감안하여 그의 올바른 생물연대를 파악해야 할까. 이의 답이 후자임은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한다.

같은 현상이 <효소왕대 죽지랑>조에서 한번 더 나타나고 있다. ‘述宗公이朔州 都督使가 되어 임지(任地)로 떠날 때 죽지를 낳았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삼국사기 혹은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죽지의 생존연대가 7C임을 감안할 때 그의 부친인 슬종공의 생존연대 또한 6C~7C임을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도독’은 다음의 기록

도독(都督) — 아홉 명이었다. 지증왕 6년(505)에 이사부(異斯夫)를 실직주군주(悉直州軍主)로 삼았고, 문무왕 원년(661)에는 고쳐서 총관(摠管)이라 했으며, 원성왕 원년(785)에 도독이라 불렀다. (都督九人 智證王六年 以異斯夫 爲悉直州軍主 文武王元年 改爲摠管 元聖王元年稱都督): 『삼국사기』 권40, 잡지9

을 따르면 ‘원성왕’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식화된 관직이다. 원성왕의 재위 당시인 785년은 효소왕대보다 무려 100여년 이후가 되니 이로 사건의 발생시기를 살피면 이 설화는 최소 원성왕 이후에나 생겨날 수 있는 일이 되어 버린다. 이 점으로써도 관직명으로 설화의 발생연도를 정확히 말하기

란 어려운 일임이 확인된다. 이러한 관직명의 모순들은 ‘잡지’기록의 잘못이거나 혹은 기록자가 자신이 생존했을 당대의 의식을 투영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부산성’문제가 있다. 이것은 신수식에 의해 제기되었고 김승찬에 의해 지지되었던 ‘죽지랑조 非 효소왕대’설을 다시 ‘효소왕대’로 복귀시킨 결정적 계기가 된 어휘이다.¹⁶⁾ 부산성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공히 663년도에 축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3년(663) 봄 정월에 기다란 창고를 남산신성(南山新城)에 짓고, 부산성(富山城)을 쌓았다. (三年春正月 作長倉於南山新城 築富山城):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6

왕은 처음 왕위에 오르자 ... 또 부산성(富山城)을 쌓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역사를 마쳤으며(王初即位 ... 又始築富山城 三年乃畢): 『삼국유사』 권2, 문무왕 법민

설화의 기록을 신뢰하여 그것을 이 기록에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죽지랑조’는 문무왕 이후에 생겨야만 할 것으로 믿게 된다. 설화에서 사건의 공간이 부산성으로 나타나고, 부산성에 관하여는 동일한 기록이 양 사서에 나타나기에 이는 ‘효소왕대 죽지랑’설을 지지할만한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16) 김승찬은 1977년 발표된 그의 논문(「죽지랑가 신고찰」, 『국어국문학』 13·14집, 부산대학교)에서 “부산성의 축조기록은 문무왕 3년(663년)이고, 원측의 입적은 효소왕 5년(696년) 7월이니 ... 모죽지랑가의 창작 연대는 효소왕 원년에서 5년 사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부산성을 죽지랑조 발생시기의 결정적 근거로 부각시켰다. 이로 신수식의 설은 一擊당하였고, 후, 후학들이 김승찬의 설을 지지함으로써 근래의 대부분 연구자들이 이를 기정사실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김승찬은 1984년 재발표된 논문(「죽지설화와 모죽지랑가에 대한 신고찰」, 『새결 박태권선생환갑기념논총』)에서는 종래 그의 결론을 修正하여 “따라서 효소왕대 죽지랑조의 죽지 미사 얘기는 선덕왕 5년(636년)경을 전후하여 생긴 사건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라 하였다. 부산성은 이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未詳이나, 아마 죽지랑조의 정황이 효소왕대에 생겨난 일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친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 상기한 ‘관직명의 오류’와 유사한 잘못이 여기에 잠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에서 관직명을 표기할 때, 기록 당대의 정황으로 옛 상황을 표기하려는 경향이 종종 나타남을 살폈다. 이는 지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竹旨郎>조에 나타나는 ‘술종공 삭주도독사’기사가 있다. 관직명에서도 한번 언급하였지만, 이는 지명에 있어서도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춘천을 지칭하는 ‘朔州’는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삭주(朔州) — 가담(賈耽)의 『고금군국지(古今郡國志)』에 “삭주는 고구려의 동남쪽, 예(濊)의 서쪽에 있는 옛날 맥(貊)의 땅이다”고 하였으니 대개 지금 신라의 북쪽 삭주이다. 선덕왕 6년(637)인 당나라 정관(貞觀) 11년에 우수주(牛首州)로 삼아 군주(軍主)를 두었는데—일설에 문무왕 13년(673)인 당나라 함형(咸亨) 4년에 수약주(首若州)를 두었다 한다 —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서 삭주라 했다. 지금의 춘주(春州)이다. (朔州 賈耽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蓋今新羅北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 置軍主 一云 文武王十三年 唐咸亨四年 置首若州 景德王改爲朔州 今春州): 『삼국사기』 권35, 잡지4

삭주라 처음 지칭한 경덕왕의 재위(742~765)를 감안한다면 <효소왕대 즉 지랑>조에 나타난 ‘술종공 삭주 부암’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는 아무래도 지명에 기록자의 당대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 볼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유사한 다른 예를 보자.

삼국유사에는 신라 헌강왕대를 배경으로 한 처용가가 수록되어 있다. 첫머리는 ‘東京明期月良’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동경이란 명칭은

경주부(慶州府): 바로 신라의 옛 서울이다. ... 시조(始祖) 박혁거세(朴赫居世)가 나라를 창건하고 도읍을 세워서 이름을 서야벌(徐耶伐)이라 하였다. 혹은 사라(斯羅), 혹은 사로(斯盧), 혹은 신라(新羅)라고 이른다. 탈해왕(脫解王) 9년 을축에 시림(始林)에서 닭의 괴이한 일이 있어서, 이름을 계림(鷄林)이라 고치고, 인하여 나라 이름으로 삼았다가, 기림왕(基臨王) 10년 정묘에 다시 이름을 신라(新羅)로 하였다. 고려 태조 18년 을미에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傅)가 고려에 항복하자 낮추어 경주로 하였으며, ... 성종(成宗) 6년(987) 정해에 동경 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가, 현종(顯宗) 3년 임자에 유수관(留守官)을 폐하고 경주 방어사(慶州防禦使)로 낮추었다. 5년 갑인에 안동 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고쳤다가 21년 경오에 다시 동경 유수(東京留守)로 하였다: 『세종실록』 권150, 경상도, 경주부

에서 보듯이, 신라시대에는 경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즉, 당대에는 ‘서라벌, 신라’ 등만 있었지 이곳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東京’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동경’을 근거로 처용가가 고려 성종(987) 이후에 지어졌다는 말은 할 수 없음을 안다. 아무래도 노랫말 가운데 ‘東京’만 후대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변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로, <효소왕대 죽지랑>조에 나타난 관직명과 지명은 설화발생시기 추정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알겠다.

참고문헌

- 김승찬(1977), 「죽지랑가 신고찰」, 『국어국문학』 13·14집, 부산대학교.
김승찬(1984), 「죽지설화와 모죽지랑가에 대한 신고찰」, 『새결 박태권선생환갑 기념논총』, 제일문화사.
김완진(1980),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노준(1977), 「慕竹旨郎歌考」, 『연민이가원선생육질송수기념논총』, 범학도서.
박재민(2004), 「모죽지랑가의 10구체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三品彰英(1943), 『新羅花郎의 研究』, 三省堂.
신동훈(1990), 「모죽지랑가와 죽지랑 이야기의 재해석」,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수식(1961), 「慕竹旨郎歌의 創作 年代 研究」, 『국어국문학』 23호, 국어국문학회.
양주동(1942), 『古歌研究』 博文書館.
양희철(1997), 「慕竹旨郎歌의 創作 時期 一瞥」, 『한국시가연구』 창간호, 한국시가학회.
유창균(1994), 『향가비해』, 형설출판사.
이능화(1972), 『조선불교통사』, 보연각.
이도흠(1998), 「모죽지랑가의 創作背景과 受容意味」, 『한국시가연구』 3집, 한국시가학회.
이흥직(1960), 「三國遺事 竹旨郎條의 雜考」, 『黃義敦先生古稀記念史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홍기문(1956), 『향가해석』, 과학원.